



23일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전북여성신년하례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내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례회 컷팅식을 하고 있다.

공지영 “조국,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 못해”

SNS 설전 벌인 진중권 교수에 사과의 말 전해

이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차익이’를 자처했던 소설가 공지영(사진)이 뒤늦게 속내를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지영은 3년 만에 신간을 출간한 책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다”며 “육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췄던 건 당시로서는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SNS 설전을 벌인 진중권 교수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다만 공지영은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세대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며 “80년대식 구호를 외치는 이데올로기적 동지들과 결별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공지영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응원하고 검찰·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공지영은 당시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털어 입증된 비리가 나왔다면 검찰 개혁은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한편 공지영의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에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자신이 속했던 ‘86세대’에 대한 성찰이 담겼다.

뉴스시스

‘백년대계 향한 여성의 힘!’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신년하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3일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4 전북여성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전북여성신년하례회는 ‘백년대계를 향한 여성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시작을 축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하는 전북여성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내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한 100년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할테니 지역 여성계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여성·가족정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계가 도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원장은 “2024년 청룡의 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꿈과 염원을 담은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게 됐다”며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성계와 힘을 모아 실력있는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여성·가족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먼 길 돌아온 ‘환수 문화유산’ 기념 우표로 나온다

문화재청-우정사업본부 협업... 30일 우체국서 판매

문화재청은 우정사업본부와 오는 30일 환수 문화유산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이번에 기념 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유산은 나전국화병무늬상자, 일영원구,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까지 총 4종이다.

최근 2년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국땅에서 환수한 문화유산들이다. 특히 4종 모두 복원기금을 활용한 긴급매입 사업으로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양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처 간 협업 사업으로, 이번이 4번째 기념우표이다. 환수 문

화유산 기념 우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60만 8000장이 발행된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 소재한 국외 문화유산 중 가치가 뛰어난 중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보다 전략적인 환수 정책을 추진하고, 환수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언론공개와 전시, 기념우표 발행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본격 추진

군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지정·고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가 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되면서 효율적인 보존 관리체계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아산면 용계리 청자요지가 지난 19일자로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됐다.

용계리 청자요지(사적 345호)는 고려 시대 청자 발생기의 ‘초기 청자’를 생산하였던 가마터다. 가마와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갑발(匣鉢)과 가마벽체, 청자 등이 폐기되어 형성된 퇴적구릉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역사공원 결정·고시를 계기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체계는 물론, 지역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공방지

2032년까지 추진되는 고창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에는 도자전시관, 체험공방, 도자마을 재현,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역사보존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재청, 국가유산 산업 청년 인턴 공모... 100명 선발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유산 산업 청년 인턴을 공개모집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1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1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의 인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재단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국가유산 관련 분야 취업 준비자다.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다.

근로조건은 하루 8시간 주 5일제, 월 206만 원(세전) 수준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100개 국가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을 선정할 바 있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주식회사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등 국가유산 활용기관과 (재)해원문화재단연구원 등 발굴조사 기관, 고창문화재보존 등 국가유산 보수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박물관 및 미술관, 모다라 등 문화상품 개발기관 등이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